

살기좋은 ‘스마트 안전도시 광주’ 만든다

방법용 CCTV 1100대 추가 설치·비상벨 확충
4년간 161억 들여 인프라 확대 범죄 예방 주력

광주시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2019년 방법용 CCTV 1100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4년 간 161억원을 투입해 도시안전 인프라를 대폭 확대 설치한다. 이는 민선 6기(1349대)와 비교해 152% 증가한 것이다.

6일 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4년 간 총 사업비 161억원을 들여 CCTV 2050대, 비상벨 930대를 확충한다.

방법용 CCTV 확대 설치하는 총출력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2019년까지, 도시공원은 2020년까지 100%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반영해 국비(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고 관계기관 및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택지 개발조정 및 도시공원 조성 등 사업 허가 시 방법용 CCTV 등 도시안전 인프라를 필수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CCTV 설치방법 개선, 한전주 등 공공자원 활용, 통신회선 공동 활용 등 구축 공법 개선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해 설치장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새롭게 CCTV가 설치되는 장소는 광주 시, 광주지방경찰청,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으로 범죄발생지역, 빈집현황 등 공공 데이터를 융합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 기

술을 활용해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한다.

2013년 CCTV통합관제센터 개소 후 CCTV 증설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5대 범죄가 5년 간 꾸준히 감소하는 등 생활 속 곳곳에 설치된 방법용 CCTV가 범죄예방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검거율도 2013년 69.5%에서 2017년 84.7%로 크게 높아졌다.

더불어 112센터, 119상황실, 재난상황실 등 관련기관은 지난 8월부터 실시간 영상정보를 공유하고 방법, 재난, 화재, 사회적 약자 등 분야별 연계를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스마트시티 5대 시민안전 서비스 제공’ 사업에 들어갔다.

시는 ICT첨단기술을 활용한 기관 간 사회안전망 협업체계 구축으로 범죄 검거

율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며 따라 올해는 112영상지원서비스를 관할 경찰서 상황실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도 과거 범죄발생지역, 관제 실적 등 범죄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별, 시간대별 선별·집중관제를 실시하고 인적이 드물거나 시설물 위주 관제지역은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는 등 관제효율화도 추진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안전 없이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광주도 만들 수 없다”며 “총출력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CCTV를 증설해 안전광주 실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 배로 늘린다

행복바우처 지원금·연령 확대

전남도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문화복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행복바우처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을 100% 인상해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렸다. 연령도 70세에서 75세로 확대한다. 또 미용실·목욕탕·영화관·서점·스포츠센터 등 36개 업종으로 제한된 사용처를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넓혔다.

카드 발급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이다. 주소지 읍면동에 2월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은 올해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여성농어업인 자격여부 일괄확인서’에 본인 및 이·통장의 확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는 3월경 확정되며, 4월부터 카드가 발급될 예정이다. 발급된 카드는 연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내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다음연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김종기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바쁘고 지친 농어촌 생활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되고 휴식시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게 시·군 담당자, 농업인 단체 등이 적극 홍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학숙 입사생 146명 모집

18~31일 원서 접수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은 2019년 전남학숙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146명(남 102, 여 44)이다. 공고일인 7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전남에 있고, 광주나 인접 시·군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원)생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18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남학숙 학생팀(061-370-6200)으로 우편·팩스·이메일로 하면 된다.

대학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신입생이나 2019년 1학기 복학 예정인 휴학생도 이번에 접수하면 2월 말부터 전남학숙을 이용할 수 있다.

신입생은 건강보험 기준으로 생활정도만 평가하며, 재학생은 성적 30% 생활정도 70%를 반영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국가유공자 등에게는 가점 혜택이 있다.

입사 대상자는 2월 7일 전남학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올 한 해 동안 군 입대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예비자 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입사하게 된다.

전남학숙은 지난 1999년 화순에서 개관, 총 312명의 지역 대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월 11만 원의 저렴한 이용료와 세끼 식사 무상 제공, 장학금, 해외문화체험 등 대학생활과 향후 진로에 도움을 주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이 높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설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 차단

영업장 480곳 선정 단속

전남도는 설을 맞아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축산물 유통 감시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남지역 축산물 영업장 4237곳 가운데 480곳을 선정해 이뤄진다. 최근 미접검 업체 및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업체, 식용란 수집 판매업체, 식육 운반업체, 전통시장 내 닭고기 판매업체 부정 유통·취급 등에 대해서도 살핀다.

작업장 시설 기준 및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비롯해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생산 및 유통,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의 부적합 계란 판매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축산물 운반과정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성수기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전통시장 내 닭고기 판매업체 부정 유통·취급 등에 대해서도 살핀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축산물의 안전과 직결된 적발 사항은 영업정지·과태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中 ‘위투’ 세계 첫 달 뒤편 탐사 순조

세계 최초로 달 뒤편에 착륙한 중국 창어 4호에서 분리된 탐사 로봇 ‘위투(옥토끼)’ 2호’가 순조롭게 운행하고 있다고 중국 국가항천국이 지난 5일 밝혔다.

국가항천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위투 2호는 통신 중계 위성 ‘첸저오(鵲橋·오작교)’와 데이터 전송 연결을 성공적으로 했으며, 환경 감지와 경로 계획을 마쳤다. 이어 계획에 따라 A 지점에 도착해 과학 탐사를 했다. 이 탐사 로봇은 탑재된 레이더와 파노라마 카메라를 작동시켜 정성적인 작업을 수행했다. 다른 장비도 계획에 따라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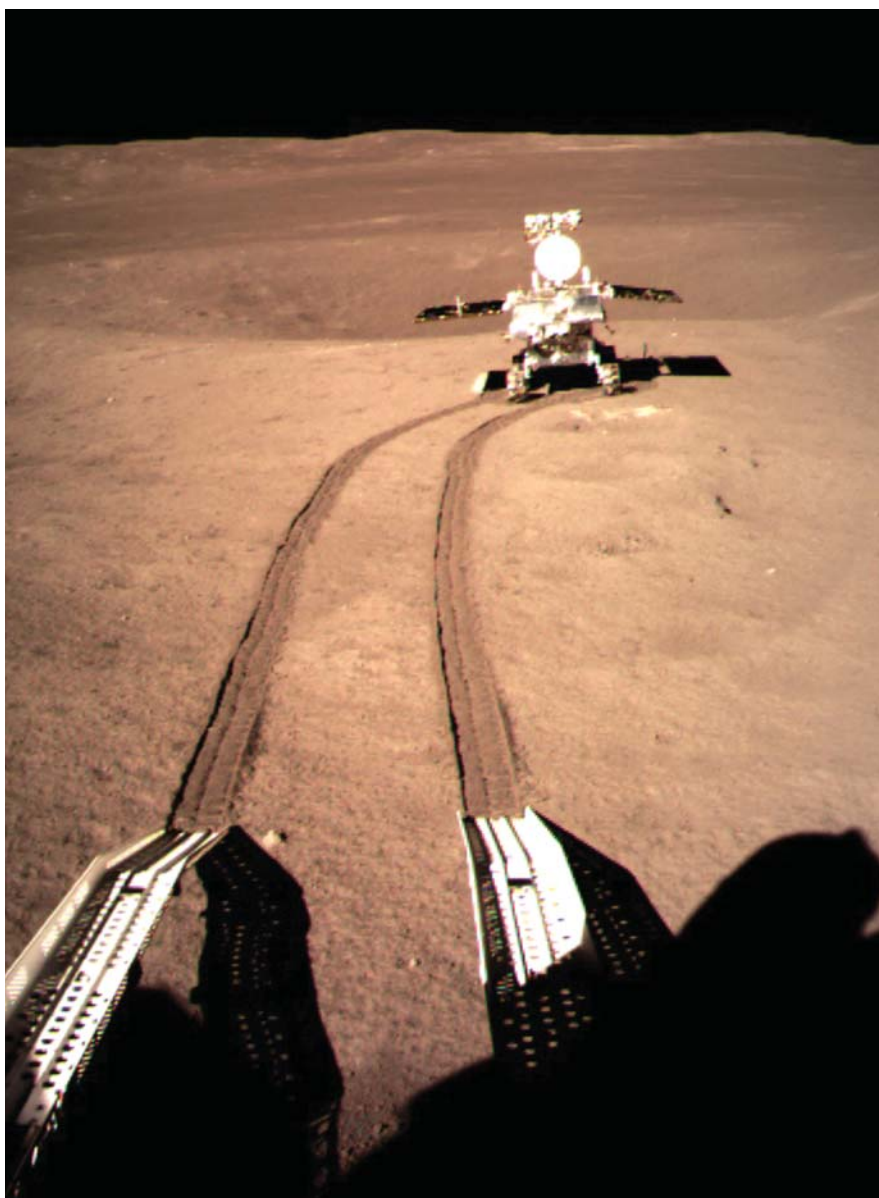
이후 위투 2호와 창어 4호는 달의 낮 시간에 극심한 고온을 맞는데 이때 위투 2호는 ‘낮잠’ 모드에 들어가 오는 10일에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의 기온은 -200℃에서 200℃ 사이로 극단적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착륙선 창어 4호는

지난 4일 5m짜리 저주파 라디오 안테나 3개를 완전히 켜며 독일제 중성자-방사선 탐지기도 테스트를 위해 켜었다. 지상에서는 달 뒤편의 이미지를 계속 받고 있다. 앞서 위투는 지난 3일 밤 창어 4호 밖으로 나와 달 뒷면에 역사적인 바퀴 자국을 남겼다.

달 탐사 프로젝트 총설계사 우웨이런은 중국 관영 CCTV에서 “탐사 로봇에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중국 민족에는 위대한 도약”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우주인 닐 암스트롱이 1969년 인간으로는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뎠을 때 했던 말을 살짝 비튼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위투 2호는 바퀴가 6개 있어 바퀴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계속 갈 수 있다. 최고 속도는 시간당 200m이며 20도 언덕을 오르고 20cm 높이의 장애물을 넘을 수 있다.

/연합뉴스



달 뒷면에 새겨진 옥토끼 바퀴자국

세계 최초로 달 뒤편에 착륙한 중국 창어 4호에서 분리된 탐사 로봇 ‘위투(옥토끼)’ 2호’가 달 뒷면에 역사적인 바퀴 자국을 남기며 이동하는 모습으로 중국 국가항천국이 4일 공개한 사진이다. 국가항천국은 위투가 전날 밤 창어 4호 밖으로 나와 순조롭게 운행했으며 과학탐사도 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달 뒤편에 착륙한 중국 창어 4호에서 분리된 탐사 로봇 ‘위투(옥토끼)’ 2호’가 달 뒷면에 역사적인 바퀴 자국을 남기며 이동하는 모습으로 중국 국가항천국이 4일 공개한 사진이다. 국가항천국은 위투가 전날 밤 창어 4호 밖으로 나와 순조롭게 운행했으며 과학탐사도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연구원 4차 산업혁명 대응 파격 인사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이 중진인 책임연구위원들에게 핵심 보직을 주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연구원은 “지난 2015년 통합 이후 지난 3년 동안 조직이 안정화되고 상생연구의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이 인사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로 연구기획본부장은 과학연구책임연구위원, 기획경영실장은 오병기 책

임연구위원이 맡는다. 경제산업연구실장에는 박용희 책임연구위원, 도시기반연구실장에는 나강열 책임연구위원, 농수산해양연구실장에는 김현철 책임연구위원, 사회환경연구실장에는 김기곤 책임연구위원, 문화관광연구실장에는 김준 책임연구위원이 각각 임명됐다.

남도학연구센터장은 김광욱 책임연구위원, 지역정보센터장은 한경록 책임연구위원이 맡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